

ISSN 2671-8731

FAITH &
LIF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격월간지

창간호

신앙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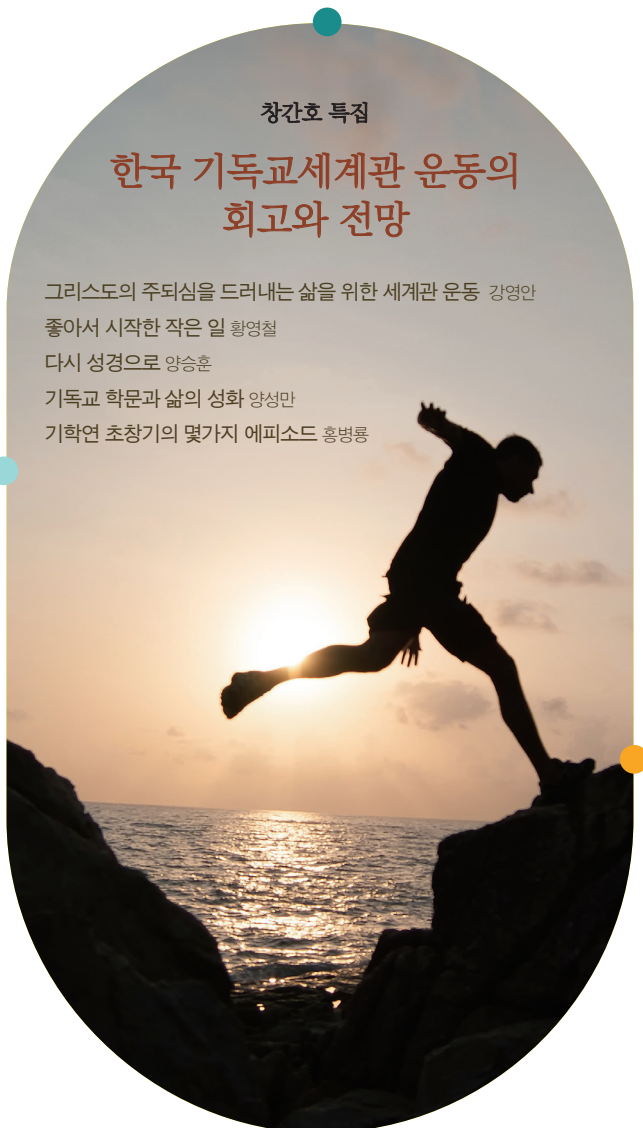
JULY + AUGUST

2019 vol.1

창간호 특집

한국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회고와 전망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세계관 운동 강영만
좋아서 시작한 작은 일 황영철
다시 성경으로 양승훈
기독교 학문과 삶의 성화 양성만
기학연 초창기의 몇가지 에피소드 홍병룡



사람 사이 법률가와 기독교 세계관, 김대인 교수

청년, 삶을 고민하다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세대교체를 꿈꾸며

문화로 세상 보기 〈기생충〉이 경고하는 인간 사회

온전한 지성 2019 춘계학술대회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ntents

JULY+AUGUST · 2019

발간사 언어는 세계관 그릇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신앙과 삶>, 그 첫 발을 떼며 신국원	04

창간호 특집

한국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회고와 전망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세계관 운동 강영안	06
좋아서 시작한 작은 일 황영철	08
다시 성경으로 양승훈	10
기독교 학문과 삶의 성화 양성만	12
기학연 초창기의 몇가지 에피소드 홍병룡	14

사람 사이

법률가와 기독교 세계관, 김대인 교수	16
----------------------	----

섬김의 자리에서

굴욕당한 '말' 박동열	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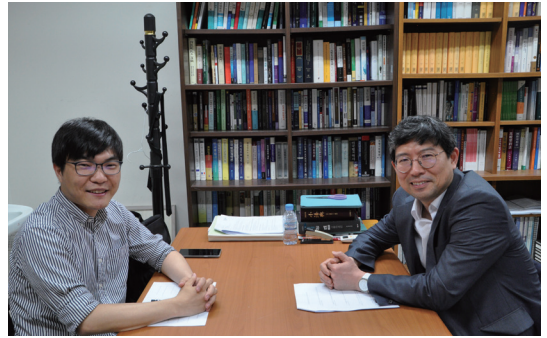


창간호 | 2019. 7+8월호 | 제1호(통권 216호)

<신앙과 삶>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세대교체를 꿈꾸며 김반석	22
기독교청년의 시대적 사명 윤헌준	24
청년, 다녀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치유: 제임스 스미스 특강 김재완	2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기생충〉이 경고하는 인간 사회 추태화	28
예술을 보다	
신음하는 나무, 박수근과 반 고흐의 소묘 서성록	30
책을 보다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유승민	32
〈세계관 이야기〉 석종준	34
〈100권의 그림책〉 지상선	36

온전한 지성

2019 춘계학술대회 이모저모	38
2019년 춘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 소개(I)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 조지혜	40
우리 우주 및 다중우주의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한 연구동향 홍성욱	42
유투브의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와 활용 강진구	44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 오익석	46

교회 路

삼일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 소개	48
아카데미 수료자 소감문 박자영	49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50



언어는 세계관 그릇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동구 공산권이 몰락했을 때 우리는 이념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다. 수 세기 동안 수용되던 ‘서양 문화 우월주의’(ethnocentrism)도 사라지고 문화 다원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어 이제는 어떤 터부도, 어떤 도그마도 힘을 잃을 줄 알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다수의 경험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견이 모아지고 그런 데로 세상이 잘 굴러 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놀랍게도 사람들과 공동체는 심각하게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제는 종교, 전통, 합리성, 상식, 경험보다 이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돈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교리를 수용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우리 동역회조차도 이에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마르크스는 자기의 이론만이 객관적 ‘과학’(Wissenschaft)이고 그와 다른 모든 주장은 다 이념 곧 ‘거짓 의식’(falsches Bewußtsein)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의 ‘과학’은 이념의 전형으로 취급되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났다. 모든 이념이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우상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이 세상에 없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이다 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념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펼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세계관을 확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비판하고 회피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절대'란 가면을 쓰고 당위를 요구하는 모든 문화물을 비판적으로 상대화하고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잣대에 따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념들은 분명히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르다. 그러므로 진보, 보수 어느 쪽에든 목을 매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 소식지는 그런 세계관 운동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지만은 철저히 성경적이고 가능한 한 공정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어긋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순수한 의도로 제시된다면 어떤 의견도 수용할 것이고, 모든 주장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진실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이 소식지는 어떤 특정한 주장으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대변하는 기관지라기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정교하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열린 토론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그리스도인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것이다.”

(Ein Christ ist im Werden, nicht im Geworden sein!)

-루터.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신앙과 삶〉, 그 첫 발을 떼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지난 일 년 우리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여 년 전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 연구모임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래 아마도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기관지였던 〈월드뷰〉를 독립시키면서 새로운 기관지이자 소식지인 〈신앙과 삶〉을 내며 많은 소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은 동역회의 핵심 기구인 기독교학문학회의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과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채택된 이름입니다. 학술지가 신앙과 통합 연구의 열매를 나누는 장이라면 이 소식지는 그것을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여기엔 학문을 넘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애쓴 경험이 나누어지는 기쁨이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일단 〈신앙과 삶〉은 자원과 수고 절약의 차원에서 격

월간으로 출발합니다. 웹진 형태로도 발간할 것입니다. 이 두 채널 모두 저희 8천명 회원이 소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동역회의 모든 활동을 공유하여 회원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애초에 우리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눈을 뜬 것은 거기에서 성경적인 삶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주목한 개혁주의 신앙의 폭넓은 관점에는 복음적 교회가 취약했던 삶과 세계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픈 정치 현실과 씨름하는 가운데 신앙이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이 교회생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는 물론 학문과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는 길을 보는 눈도 열렸습니

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진리가 유물론이나 자연주의, 인본주의, 마르크스즘, 무신론보다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부했고 토론했고 가르쳤습니다. 삶과 학문의 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전진했습니다. 책을 번역하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한 현실참여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 길을 치우침 없는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동역회가 어려움을 겪은 지난 일 년간 모든 공동체의 회원들이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은 성숙한 인내의 모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으로 <월드뷰>의 분리를 인준하게 되었으나 그 아픈 절차를 사랑으로 처리하게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디 <월드뷰> 역시 그것이 본래 창간된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도구로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앙과 삶>은 최초의 소식지며 기관지이던 <온전한 지성>과 그간 회원들의 사랑을 받아온 <월드뷰>를 이어 새로운 기관지로 그 첫 꼭지를 엮습니다. 새로운 기관지의 발간에 즈음하여 이 일을 맡아 섬기게 될 편집위원들은 “다시 동역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기억하며 치우침 없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희 편집위원 모두는 이미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동역회 회원 전체가 함께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오성, 성령의 역사를 통한 모든 인간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굳건히 믿는 신앙의 기초를 공유”함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신앙적 기초가 획일화된 신앙이나, 정

치적 입장의 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잊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도 강한 주장들의 첨예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사회는 어디서나 객관주의나 상대주의의 극단적 선택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처럼 폭풍과 지진 속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자세는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역회는 하나의 진리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누구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서기까지 절대임을 주장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임을 지향해왔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관지인 <신앙과 삶>도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모든 회원이 그 다채로운 삶의 경험을 풍성하게 나누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신앙과 삶>의 태동을 위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어준 편집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포항과 전주, 대구에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가장 고통받는 젊은 세대를 대표한 편집위원의 열정적 참여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신앙과 삶>을 동역회 회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기도의 성원과 함께 투고와 기탄 없는 질책을 기다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네델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신앙과 삶> 편집장과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세계관 운동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철학 신학)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모임의 형식으로 국내에서 시작한 시기를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기대설)가 시작된 1980년대 초로 잡는 데는 아마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저는 1978년 유학을 떠나 1985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1986년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간 이후, ‘기대설’과 ‘기학연’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 운동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 암스테르담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교사수련회나 대학생 수련회에서 이미 세계관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세계관’이란 이름으로 다룬 내용을 처음 접한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 전, 1960년대 고신

교단 소속 교회를 다니면서 ‘학생신앙운동’(SFC)에 참여할 때부터였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이란 구호를 배운 때가 이때였고, 우리를 일깨워 준 분이 당시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근삼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1962년 바빙크(Herman Bavinck) 교수의 지도로 선교학 분야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970년초 대학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한 책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프린스턴 강의를 담고 있는 <칼빈주의 강의>,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한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 그리고 이근삼 박사님이 1972년 번역을 해낸 헨리 밴틸(Henry Van Til)의 <칼빈주의 문화관>이었습니다.

니다. 역시 고신 교회에서 자라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손봉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더 분명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이 관심은 유학 중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칸트 이후로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독일 철학계에서 사용한 용어이고 기독교도 어느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계관으로 한정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는 수 없이 쓰기는 하지만, 저는 세계관이 단지 지성이나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삶의 방식, 삶의 지향과 추구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고자 애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시키고 일그러지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공통은혜’(일반은혜, 일반은총, common grace)를 저는 강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은혜’는 신자와 불신자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의 자리, 곧 ‘공통의 근거’(common grace)를 마련해 주지만, 정치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교육의 영

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보냄 받은 삶을 살아야 할 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왕 되심’이 학자로 부름받은 저의 삶의 근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카이퍼(Abraham Kuyper)는 ‘왕을 위하여’(Pro Reg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는 학문을 통해,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 각자 처한 삶의 영역을 살려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된 과제라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 짐을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함께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 명예교수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신학(Philosophical Theology)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를 졸업 후, 벨기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칸트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고려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좋아서 시작한 작은 일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목사)

이 글을 원이삼(Wesley Wentworth) 선생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에 원 선생님을 만나 1982년부터 스터디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대학원생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어언 36년 전의 일이다. 어제(2019년 4월 14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원 선생님을 문병했다. 병실에 들어서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서 뭔가 열심히 하셨다. 마침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고 계신 중이었다. 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관한 책 소개였다. 원 선생님은 1965년에 자비량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후 꼭 그와 같은 일을 오늘까지 54년 동안 해오셨다. 병상에 누워서 호스로 복수를 빼내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참 놀라운 일이다. 아마 원 선생님을 만난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수십 년간 해오셨을 것이다.

원 선생님과 함께 처음 시작한 스터디그룹을 지금 기억나는 대로 열거하면, 당시 홍릉의 카이스트(KAIST)에서 과학과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거의 매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영문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예술과 기독교, 경제학과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등의 스터디그룹을 조직하여 책을 읽고 토론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리차드 미들튼의 <그리스도인의 비전>(Transforming Vision, IVP), 엘 칼스베이크의 <기독교인의 세계관>(Christian Worldview, 평화출판

사), 해리 블레마이어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Christian Mind, 두란노) 등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당시에 이런 책들 이외에도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Universe Next Door, IVP), 마이클 고힌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 IVP) 등의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이라 할 만한 책들이 다른 분들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다. 특히 아이브이피(IVP) 출판사는 관련 서적 출판에 앞장서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일들이 1980년대 초중반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대학교 교정, 교수 연구실, 개인의 가정에서 모이던 스터디그룹이 조금씩 커지면서 조그만 자체 공간을 확보하였다.

초창기에 함께 했던 분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인내를 발휘해야 할 만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많다. 당시 참여자들은 열정적이었다. 뭔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흥분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들이었고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믿지 않는 학생들은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돌을 들고 최루탄 연기 속으로 뛰어 돌아다니던 때에, 그런 폭력적인 방식에 기독교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기는 했지만, 적당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찾지 못해 어색하게 머뭇거리던 당시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고 단비와 같았다.

전공을 달리했던 많은 학생들이 그 일에 참여했으므로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여했듯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나는 나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일에 기여하려 했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기독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였으나 나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물론,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뒤에 도예베르트(Dooyeweerd)의 〈서양사상의 황혼에서〉(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크리스찬다이제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에 힘을 썼다.

그래서 만든 커리큘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세미나였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여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일별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여 힘 있게 전진하고 있고, 신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이므로 신자의 삶 전체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려 했다. 당시 거의 모든 스터디그룹이 원이삼 선생님의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과 똑같이 그때에도 책과 논문 프린트를 들고 학생들의 전공을 묻고 책을 들이밀었다. 그 고리에 걸리면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초창기 약 십여 년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할 때에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 원이삼 선생님은 똑같이 그 일을 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도 점점 발전했다. 죄인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있게 마련인 분열과 갈등을 ‘기학연’도 피하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내실 것을 믿는다.

목회는 그 나름대로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어서 현재 ‘기학연’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학연’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생각들은 나의 설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그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회중의 몫이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꽤 치열하게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다면 즐기면서 할 것 같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을 읽고 이해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 운동이 그렇게 즐기는 운동이 되면 좋겠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원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코드다〉(IVP), 〈검손〉(IVP), 〈구원과 윤리〉(대장간), 〈성령과 윤리〉(생명의말씀사) 외 다수가 있다.

다시 성경으로¹⁾

양승훈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기초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 오르(James Orr, 1844~1913)와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 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등에 의해 놓여졌다.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 사상이 다 방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몽주의 시대 기독교는 종래와는 달리 총체적인 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출발했다.

특히 카이퍼는 근대주의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 이성절대주의, 인문정신, 세속주의, 진보주의 역사관, 자유주의 신학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교회에서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적 부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는 네덜란드의 도예베르트(H. Dooyeweerd, 1894~1977)와 북미의 클락(G. H. Clark, 1902~1985), 헨리(C. F. H. Henry, 1913~2003), 셰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를 거치면서 일반인들의 실제적 삶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되었다. 셰퍼는 특히 학자와 운동가의 중간에서 대중적 기독

교 세계관적 영성의 개념을 확립했는데, 사이어(J. W. Sire), 미들튼(R. Middleton), 왈쉬(B. Walsh), 월터스(A. Wolters) 등으로 하여금 대중적 세계관 서적을 출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학자들의 저술들을 한국 교회에 소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원이삼(Wesley Wentworth, 1938~) 미국 선교사였다. 그는 1965년 한국 땅을 밟은 이래 줄곧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도와온 인물이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필요성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병폐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즉,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고, 이러한 기독 청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며 시작된 것이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었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단체는 1981년에 시작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와 1984년에 시작된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를 들 수 있다. 원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후에 기독교술교육동역회로 개명)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

1) 이 글은 <통합연구> 20권 1호 (2018.5.15.)에 실린 양승훈의 논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회고와 전망”에서 발췌한 것이다.

학 설립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기학연’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공교롭게 두 단체의 초기 활동은 모두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연구와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천천히 한국 교회와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의 초기 핵심 구성원이었던 대학원 학생들과 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전 우주적인데 어떻게 자신의 삶과 학문 활동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답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있다고 보았다. 1980년대 초반 암울했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목마른 젊은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다.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지도 근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1980년대 초 이래, 이 운동의 중심 진지로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와 ‘기독교학문연구회’(KCSI)가 있었는데, 이 두 단체는 2009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로 통합되었다. 또한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으로는 동역회가 파송한 양승훈 교수를 통해서 1998년부터 시작한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교회의 주요한 운동의 하나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 지평이 확장되면서 2000년대부터 비판적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세계관 운동이 여전히 식자들만의 운동이 아닌가?”, “운동을 태동시켰던 개혁주의 세계관 의

의 세계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는가?” 등의 비판과 문제 제기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과 도전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지나친 보수화이다.

한국 교계에서 처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한 1세대 주역들은 1980년대 초, 20대 중반에 있던 대학원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당시로는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고, 이들 상당수가 국내외 중요한 대학의 교수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세계관 운동은 가진 자와 식자의 운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계관 운동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엘리트들의 운동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운동의 보수화는 반드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미주에서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세계관 운동의 보수화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름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에는 세계관 운동에 앞장섰던 1세대 지도자들의 보수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관 운동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승훈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교수이자 주빌리 채플 책임목사이자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했다.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1983~1997)를 거쳐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원장(1997~2018) 역임, 창조오픈포럼 대표(2007~현재)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창조와 격변>(예영), <창조와 진화>(SFC), <기독교적 세계관>(CUP), <창조에서 홍수까지>(CUP), <그랜드 캐니언>(CUP)의 40여 권이 있다.

기독교 학문과 삶의 성화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수/서양철학)

“황영철이라고 합니다. 신국원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전화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전화가 대학원생 시절부터 지난 35년간 이어온 내가 기독교세계관 운동과 맺은 인연의 시작이었다.

처음 참석한 연구모임은 나의 전공과는 관계가 없었던 과학 모임이었다. 이미 김현수 씨가 역사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고, 얼마 후에는 철학 연구모임이 만들어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 교육학, 정치, 심리학, 사회정의 등의 모임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곤 했다. 이 다양한 모임들 사이에 모종의 연대감이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전체 모임과 집담회를 갖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1984년 1회 집담회에서 ‘기독교학문연구회’가 탄생했다.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기독교학문연구회에 본격적으로 전문 학자들과 교수들이 가담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한국 기독교 학문의 선구자인 손봉호 교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을 비롯해 유학 전후에 기독교학문연구회에 참여하거나 원이삼(Wesley Wentworth) 미국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학문 연구를 소명으로 삼게 된 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기독교 학문학회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에, 비전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다

소 달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어떻게 통합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지는 본 동역회 홈페이지의 연혁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린다.”를 모토로 삼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 결과를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앙과 학문>이라는 논문집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 학문 연구의 터전이 확실히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동역회’는 또 기독교세계관으로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관 아카데미’와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등을 운영한다.

한편 기독교세계관을 따라 삶을 살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그동안 성경적 삶을 제반 사회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기관지 <월드뷰>를 매월 발간했다. 하지만 이 잡지 편집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좁히기 어려운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독자들도 다 짐작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정리와 매듭이 잘 이루어졌고 새로운 기

관지 〈신앙과 삶〉이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임에 가담하게 된 개인적 동기는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의 모임이라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학문연구라든지, 기독교적인 삶이나 문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에 주로 원이삼 선교사가 소개해 주는 서적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도구를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이면에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카이퍼나 도예베르트 등이 어떻게 당시의 문화 전체 및 철학을 비롯한 제 학문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며 세워나가려 했는지도 배웠다. 그 이후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학문연구와 문화변혁의 열쇠처럼 되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학문을 하는 데에 소위 ‘기독교 세계관’으로 충분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학자가 학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폭넓은 연구와 깊은 통찰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기독교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새로운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통찰이 어떤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점은 독자들도 잘 아실 것이다. 관련된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성경이 주로 ‘구원’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 삶의 전체와 문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따라서 성경이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고 정돈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이다. 물론 뛰어난 기독교적 연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 분야에서 그 내용을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게 녹여 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학문연구나 문화의 개혁은 성화된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참된 신자의 삶이 없이는 기독교 학문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동역회’나 ‘학문연구회’로 모여서 신자의 성화된 삶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의 전제이고 출발점이며, 우리가 하는 일도 이것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교양학부 철학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고려대에서 서양철학으로 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로는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와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켈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기학연 초창기의 몇가지 에피소드

홍병룡 (아바서원 대표)

젊은 시절 내가 처음 기독교세계관을 접하고 제2의 회심을 경험한 후 훗날 기독교학문연구회로 발전한 세계관 스터디 그룹에 몸담게 된 경위를 얘기하려고 한다. 어쩌면 선사시대(?)의 이야기라 불러도 좋겠다. 내가 웨슬리 선교사를 만난 것은 1978년 대학 3학년 때였고, 그 만남 덕분에 대학원 시절인 1980년 당시 서울대학교에 방문교수로 와 있던 윌리엄 쇼(William Shaw, 하버드에서 조선법제사를 연구로 학위를 받은 분) 박사를 소개받아 몇몇 연세대 IVF 졸업생들과 함께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The Universe Next Door*(나중에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으로 출간됨)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나로서는 최초의 세계관 공부였다.

이후 군대에서 전역하고 1984년 가을 IVP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대학원 학생이거나 기독교세계관을 이미 접한 대학 졸업생들이 IVP 사무실에 모여 웨슬리 선교사가 추천한 책들과 자료들을 몇 년간 공부했던 것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전신이었다. 황영철, 김현수, 양성만, 유해신 형제 등 신학, 철학, 역사학, 정치

학 등을 전공한 멤버들이 다함께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고 각 학문영역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 서로에게 상당히 유익했고 큰 자산으로 남았다. 아울러 그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그런 책들을 IVP를 통해 번역 출판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에게 큰 보람이었다.

좀 더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있다. 대학원 시절 나는 원효로 2가 하숙집에서, 웨슬리는 원효로 4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해서 중간에 만나 더 많이 된 사람의 방향으로 함께 뛰면서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넘겨받았던 것이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웨슬리 선교사가 대학원생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스터디 그룹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 또 한 사람을 거론하고 싶다.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의 이사를 역임했던 존 반다이크 박사 부부가 1986년경 듀폰 회사에서 은퇴한 후



웨슬리(원아삼) 선교사

한국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당시 미국에 머물던 웨슬리의 소개로 우리 멤버들이 그분을 만나 기독교학문연구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연구소를 모델로 삼아 우리 모임을 ‘기독교학문연구회’로 부르기로 결정했었다. 우리 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양승훈 교수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멤버들은 기독교대학보다는 연구소가 더 한국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길을 걷되 서로 자매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이 기억난다.

시간이 조금 흘러 오창희, 김재춘 형제, 최예정 자매, 허문영 형제 등이 스터디그룹에 합류함에 따라 학문의 영역도 교육학, 영문학 등으로 더 넓어지게 되었다. 그 즈음에 대관령에서 제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수련회를 개최했다가 강풍을 만나 텐트를 접고 당시 창조과학회 집회로 그곳에 와 계시던 김정한 교수(기학연 이사)의 숙소로 대피했던 일도 생각한다. 그 수련회에서 만난 김재춘 형제와 최예정 자매가 훗날 부부가 된 것도 어쩌면 기학연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본다.

초창기 기학연 모임은 물론 우리 젊은이들만의 만남은 아니었다. 우리 뒤에는 손봉호 교수, 김정한 교수, 김정욱 교수 등과 같은 분들의 지도와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앞 세대의 그런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몇 십 년을 돌이켜보면 멤버들의 순수한 열정과 비전, 세대 간의 만남과 멘토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 이 단체의 시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주니어 한 명씩과 멘토링 관계를 맺어 그 정신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차세대로 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FAITH & LIFE**



글쓰기 흥분통



도서출판 아바서원 대표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KCSI) 개척 멤버 중 한 사람으로 연세대학교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기독교학문연구소,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했고, IVP대표 간사를 역임했다.

법률가와 기독교세계관, 김대인 교수

지난 2019년 6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로, 기독교학술역회의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대인교수를 만났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행정법, Ph.D)에서 공부하고, 법무법인 소명 소속 변호사와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역임한 김대인 교수는 공공조달법과 민간투자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법과 통일법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504호

인터뷰어 윤현준(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실행위원)

윤현준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대인 교수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변호사 활동을 잠깐 하였고,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탕교회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서울광염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에배부 부장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윤현준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학자로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대인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학생신앙운동'(SFC)에 들어갔는데, 그 때 지도교수님이 손봉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법학 분야에서 학자가 되어서, 기독교세계관과 접목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좋은 학자가 되려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변호사를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찾아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준 그리스도인 법률가에게 일차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인 변호사 시절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로펌에 계시던 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법률가회'(CLF)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법률가회에 계시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2가지 핵심 가르침,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법률가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이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이웃, 예를 들어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판사라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존중하면서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준 교수님은 일상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이신가요?

김대인 우선 삶의 현장에서 좋은 관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열심히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학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반응이 올 때 많은 보람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근무했던 한동대학교로부터 법학부 설립 20주년이 되었다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신앙 안에서 옛 동료교수님 및 제자들과 따뜻한 나눔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이화여대에서도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특별히 논문 쓰는 작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나 학자들이 제 논문을 읽고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윤현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법률가로서 '세상'에서 언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지요?

김대인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실무에서 떠나있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변호사 시절을 기억해보면 의뢰인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원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려운 점도 역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학회활동 등을 하다보면 그리스도인뿐



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반대로 오히려 제가 그런 관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있진 않은지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자라고 할 때 일단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처하시는지요?

김대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여 설득해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싶으면 조금 거리를 두기도 하고, 두 가지 전략을 다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현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 삶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대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다 믿으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쭉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학과 선배가 ‘학생신앙운동’(SFC)을 추천해서 가입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아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접한 게 인생에서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존 스토틀, 아브라함 카이퍼, 프란시스 웨퍼, 자크 엘룰, 리차드 미들튼 같은 분들의 책이었죠. 이 분들의 글이 다 좋았지만, 그 중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은 존 스토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의 균형 있는 사고방식을 좋아해서 지금도 신앙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현준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절대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뢰받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판만하고 끝날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많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좋은 그리스도인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균형’이라는 가치를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이슈들을 볼 때도 그렇고, 지성과 영성의 균형,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의 가치는 한마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현준 교수님은 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중 한 분으로서, 우리 동역회 회원들은 앞으로 무엇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인 제가 동역회 활동에 지금까지 참여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결국 각자 영역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세계관 관련해서 좋은 책도 많이 있고 총론 차원에서 공부하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론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결국 각론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분야, 법률분야,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실무로 뛰는 분들과 각 전공 학자들이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기독교법률가회’(CLF)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실무가들과 교류할 때 많은 영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신앙과 삶’인 것 같아요. 삶과 유리되지 않은 그런 학문을 교수님들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

장에 계시는 분들도 학문의 세계는 나랑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학문적 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와 실무계가 서로 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역회가 이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윤현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몸담은 법률가로서 장차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김대인 저는 학자로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시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그 세계관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자로서도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연구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차적인 소명 또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우면서도 제일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법사상 강독모임'이라고 그리스도인 교수님들, 대학원생들이 함께 하는 공부모임에 10년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계속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나가면서 기독교적인 영감을 많이 제공받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영감들을 토대삼아 연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윤현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이 더 많이 기독교세계관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인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자신의 각 분야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도 많이 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과 실무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것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창한 것 보다는 일단 자기 말에 책임 있게 행동한다든지,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현준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로서 이 땅의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인 존 스토틀가 한 말 중에 '이중적 귀 기울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 모두 잘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픔과 어떤 요청이 있는지 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과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땅의 젊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지만, 세상에 어떤 아픔들이 있고 요청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함께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신문 등 언론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본인의 전공 학문분야를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학문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속학문을 비판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다보니 제가 오늘 말하는 것과 얼마나 부합되게 살고 있나 이런 반성의 마음이 드네요. **FAITH & LIFE**

굴욕당한 ‘말’*

박동열 (실행위원장)



초지능, 초연결, 소통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말’은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천렵질’, ‘달창’, ‘적폐(積弊)’ 등과 같은 험한 말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말하는 자’의 잘못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자신을 부각시키고, 어떻게든 공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인들만이 막말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라란 점에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말을 할 때 뇌를 거치는 이성적 성찰을 배제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산다. 이런 식의 ‘말’은 필연적으로 ‘말’과 ‘말한 사람’과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말하는 자’와 ‘말’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끊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단절된 ‘말’ 속에는 ‘말하는 자’의 삶의 무게와 그 자신의 인격이 전혀 실리지 않게 된다. 또한 그 속에는 어떤 진지함이나 진실이 담겨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말’ 속에 자신의 인격과 삶이 들어 있지 않는 ‘말’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말’은 그냥 ‘소리’이며, ‘잡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말’이 대중매체를 통해 주목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완전히 익명의 소음이며, 그 ‘말’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들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은 ‘구호’이고, 스쳐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다시 말해 기표(記標, 시니피앙), 기의(記意, 시니피에), 지시대상, 함의로 채워진 사람의 ‘말’이 텅 비워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말’ 속에는 의미를 담을 필요도 없고, 의미를 싣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은 너무도 쉽게 ‘이즘’(ism), ‘교리’, 대의명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선전’(propaganda)에 동원된다.

오늘날 ‘말’이 심각한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러한 막말을 차지하더라도, 일상적인 언어 속에도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과 ‘말하는 자’의 단절이 일상적인 ‘말’조차 별거숭이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말해야 할 것’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며, 듣고 또 듣고 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시와 역사와 철학을 말하거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와 가르침을 교환하거나, 세상을 분석하려는 의식과 성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수다’와 다를 바 없는 쓸데없는 말하기, 사건을 도식화하거나 왜곡하여 의미와 진실성이 결여된 말하기가 우리의 일상과 대중매체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채우고 있다. 넘쳐나는 정치담화들과 전혀 연속성이 없는 뉴스들과 수많은 강연들과 심지어 설교들 속에도 진정으로 ‘말’되는 어떤 것을 찾아보기가 드물다. 오직 병적인 ‘수다’, 현혹하는 무의미한 단어의 포장, 깊이가 전혀 없는 단순한 자료와 분석들, 치밀한 ‘선전’들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는 귀를 기울여 흘러가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배었다.

하지만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은 철저히 인격과 통합된 ‘말’이다. 즉 그 인격이 진실하면 그 ‘말’ 역시 진실하다는 의미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만약 예수님의 말들이 자신의 인격과 분리되었다면, 그의 말과 성서 자체는 그 어떤 진실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속에는 ‘말’과 진리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 모든 인격적 관계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 이런 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말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말로 인해 우리는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온갖 헛된 ‘말’을 해명해야만 한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역시 ‘말’로 존재하셨다가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이고, 동시에 인간의 ‘말’을 회복시켜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이 투사되어야 하고, 자신의 ‘말’속에는 자신의 인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 세대가 지껄이는 고착된 언어가 아니며, 인간적인 익숙함과 소유를 거부하는 생생히 살아 있는 ‘말’이어야 한다. 이제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의 새로운 기관지, <신앙과 삶>이 오랜 논의 끝에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역회의 새로운 기관지가 자가생산적이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하나님의 ‘말’을 투영하는 자유로운 ‘메아리’와 ‘반향(反響)’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FAITH & LIFE

* 본 글의 제목은 자끄 엘룰(Jacques Ellul)의 저서 <굴욕당한 말>(La parole humiliée, 대장간, 2014)에서 가져온 것임.



글쓴이 박동열



서울대 사법대 부학장이다.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한국 자끄 엘룰 협회 대표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세대교체를 꿈꾸며

김반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지난 2019년 2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데이비드 노글(Daivid Naugle)의 역작,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Worldview : The history of Concept, CUP, 2018)를 가지고 북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세계관운동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일컬어지는 이 책을 우리나라 세계관 운동의 큰 선배이신 신국원 교수(충신대), 최태연 교수(백석대)와 함께 상고하고 토론하는 귀한 자리에, 청년그룹의 대표로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 북 콘서트가 오래전부터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학문의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막 학문의 여정을 출발한 가운데, 선배들의 뒤를 따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학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신진 학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같은 부르심을 발견하고, 다짐을 새로이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이어진 박동열 교수(서울대 사범대 부학장)의 축사부터, 신국원 교수(충신대 기독교철학) · 최태연 교수(백석대 기독교철학) 두 분의 열띤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시는 여러 선배님들을 보면서, 청년 학도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치열하게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고민하시며, 기독교세계관을 공

부하고 실천해 오신 선배 세대의 열정에 새삼 감동을 받았다. 저분들의 오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고, 그러한 뿌리가 있었기에 나 역시도 세상의 학문을 접하는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신앙적 지평 안에서 나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선배들의 수고와 열심에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노글의 책을 공부한 친구들을 보며, 그리고 행사에 함께한 여러 동료 청년들을 보며, 선배들의 고민을 이어받아 함께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 복음주의 지성 운동의 다음 주자로서의 사명과 책임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 세계관 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와는 또 다른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담론의 등장,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재고와 성찰의 움직임 등, 다방면에서 기존의 상식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의 도전에 대해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아 가는 복음주의 지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타협과 무조건적인 배척 사이 그 어딘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은 믿음과 함께 사랑 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복음주의의 지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후속 세대 그리스도인 학도들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배들이 물려준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주의 학문의 지평 안에서,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지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고, 복음 안에서 시대를 해석해 나가며, 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신국원 교수님의 표현을 전유(appropriation)하자면, 선배들이 물려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변화된 시대상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잘 손질하고 세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 나가는 것이 후속세대의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리키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그렇지만 후속 세대가 진정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세대교체와 이양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교체의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영원히 '다음'이라는 시간성 속에

간혀 유예되는 가운데,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후속 세대 역시도 선배 세대의 신앙과 학문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견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의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한국교회의, 그리고 복음주의 지성 운동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서울대 인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일본 문부성장학금 시험을 통과하여 일본 동경대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사회학전공에 유학 예정이다. 남서울교회(고신)에 출석하고 있으며, 학부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 SFC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서기연) 중앙위원단,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생 기독교세계관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기독교 청년의 시대적 사명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한반도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권 피탈, 한국전쟁, 냉전과 군부 독재 등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픔과 고뇌의 역사 그리고 승리와 희망의 미래의 경계선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었다. 복음을 사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꿈꿨던 공적 신앙은 기독교 청년들이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1938-)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골자로 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초(超)연결·초(超)지능·초(超)실감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고도화된 미래사회로의 격변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빠른 속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 소외를 경험하며 가치 부재 및 혼돈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계층, 지역, 세대, 이념 간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며 반목이 표출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내면의 최성으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걸머지는 신앙이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 청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첫째, 참된 진리를 망각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대해 선지자적 반(反)시대성으로 저항할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교수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는 그의 저서인 <호모 데우스>(Homo Deus)에서 인류가 기근, 역병, 전쟁 등을 극복해오면서 불멸, 행복, 신성(神性)을 지향하는 인간을 꿈꾸게 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철저한 무신론적 미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역사 속에서 참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 사이에 너무나 큰 역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으나, 우리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동안 이원론의 영향으로 신앙과 지성을 분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일반 계시'(General Revelation)는 자연(하나님의 질서), 인간(하나님의 형상), 역사(하나님의 섭리) 등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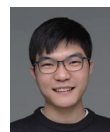
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 탐구가 단순히 지적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성품, 뜻과 생각이 드러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무너지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잘못된 구조와 제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함으로써,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의 단절을 봉합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 나갈 사명이 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독립선언서를 공표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조들의 결단은 우리 민족의 새 역사를 일구는 분기점이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다음 세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넷째, 분단의 비극과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살롬(shalom)을 선포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준비할 사명이 있다. 전쟁과 폭력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이지만, 우리

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망각한 채 남북 화해는 여전히 언급하기 불편한 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 땅을 화평케 하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쟁이를 만드는, 다시는 전쟁 연습이 필요 없는 나라를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앉는 그 날을 맞이해야 한다.

공간을 초월한 하늘을 누리는 삶, 시간을 초월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기독 청년들이 세속화된 이 시대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역사 속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영성의 삶에 도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독 청년들이 작은 거자씨로 이 땅에 빔어낸 사랑의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전조를 맞보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윤현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Ph.D)에서 공부했고, 서울대 기독대학원생모임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서울 정릉교회(예장 통합) 청년이다.

예기치 못한 치유

김재완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과정)

이글은 지난 5월 29일 서울대 종강예배(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 있었던,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등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미 칼빈대학 기독교 철학 교수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의 “You are What You Love : University as a Place of the Worship”라는 특강에 대한 리뷰이다. 제임스 스미스는 최근 고려대 2019 베리타스 포럼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 번 특강 이외에도 고려대(5월 28일), 성복중앙교회(5월 30일), 삼일교회(5월 31일)에서 일정을 소화하였다.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은 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열망하는 존재로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열망을 재현하는 존재이다. 내면화된 사랑의 구조와 질서야말로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구성하는 기제이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열망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열망을 주조하고 강화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을까?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그저 교리나 신념체계의 나열이 아니다. 종교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실천과 의례, 곧 ‘예전적 리듬’(Liturgical rhythm)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는 단지 종교기관이 수행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지향이며, 헌신의 방향을 투영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예전적 촉매가 된다. 따라서 종교는 우리의 사랑과 열망을 다루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종교를 인지적인 신념과 가치, 기관 위에 위치시켰을 때는 종교에 대한 부분적이고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영향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의례는 그 종교가 지향하는 열망, 사랑, 헌신, 가치관, 정체성을 ‘체현하고’(embody), 종교적 존재인 모

든 인간은 예전을 통해 내면화된 사랑의 구조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재현한다고’(represent) 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적 사고방식이 규정하고 범주화한 종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것을 요청한다.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 소비주의, 교육체계,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예시들이며 각기 경기장, 백화점, 대학교, 핸드폰은 각각의 고유한 예전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열망과 사랑을 특정한 방향으로 질서 짓고 강화시키는 종교기관들이다. (경기장은 국가에 대한 사랑을, 백화점은 돈에 대한 사랑을, 대학은 성공에 대한 사랑을, 핸드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양시킨다) 따라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복수의 종교기관들 안에, 종교기관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종교는 일상과 무의식에 혼재한다. 오늘날과 같은 21세기에는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혼재의 양상은 날로 더욱 복잡하고도 두텁게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를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문화에 대한 예전적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이 의례들과 예전은 무엇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가?”, “나도 모르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예전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살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속한 종교기관인 대학은 어떠한가? 교육기관인 대학은 스스로 비종교적 기관을 표방하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그 구성원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열망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종교기관이다. 대학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사랑하게끔 하는가? 대학은 은밀하고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으며,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실천을 하게 만들고 무엇을 열망하게 만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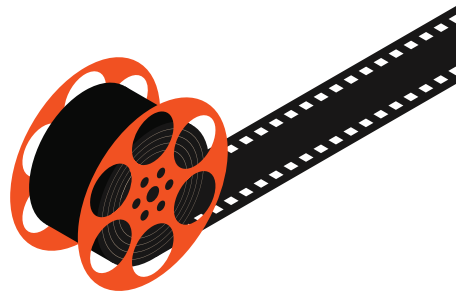
이에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 예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 스스로를 살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어그러진 사랑과 열망의 구조를 재형성함으로 다시 바르게 질서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질문을 던져 본다. 이곳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20대 절반을 보낸 신학대학을 떠나, 관악에 발을 디딘 첫 학기가 떠오른다.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열등감 속에서, 사흘쯤은 무력감 속에서 지내고 하루도 빠짐없이 피곤했던 나날들. 그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대학원생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네 페이스대로 우직하게 가야 해, 안 그러면 우울증 걸려.”라던 한 선배의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는데, 내가 받은 새 힘과 위로의 실마리는 ‘내 페이스’라는 말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선배는 다른 의미로 말했겠지만, 적어도 내게 ‘내 페이스’라는 것은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유해하고도 걱정적인 정서들은 지독한 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질병의 증세였음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나에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고, 지독히도 나를 열망하게 하는 종교기관이었던 것이다. 내 페이스를 회복함으로써, 즉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 이곳에서 나도 모르게 걸렸던 어떤 병의 정체와, 나도 모르게 받았던 예기치 못한 치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선명하게 이해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재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으나 1학년만 마치고 휴학 후 현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예수행남교회에서 행복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기생충〉이 경고하는 인간 사회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징그러운 기생충?

사전은 징그럽다는 말을 “만지거나 보기에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하게 흉하다”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송충이가 그렇고, 꿈틀대는 지렁이가 그렇다. 기생충은 어떨까? 기생충도 사람에 따라 징그럽다고 말한다. 그런 징그러운 물건이 실은 살아있는 생물(生物)이고, 더구나 사람 몸 속에 들어있다면 믿어지겠는가? 끔직하지만 팩트이다. 그런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 살아 꿈틀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영화계 최고 명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제목이 바로 〈기생충〉인데, 그 작품의 감독은 봉준호이다.

장르1: 블랙코미디

〈기생충〉은 넌센스로 가득차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장면들이 배치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한 실직 가장(송강호 扮)의 집안, 엄마와 아들, 딸, 그들은 반지하방에 살며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 수신양호 지역을 찾기에 열심이다. 흥미로운 것은 어려운 살림지만 서로 미워하기는커녕 나름 웃음과 가족애가 흘러 넘친다. 가난에서 오는 열등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대상인 가정이다. 여기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가정, 벤처로 큰 돈을 벌어 언덕배기 그림같은 집에 사는 사장(이선균 扮)의 집. 이 가정 역시 엄마와 아들, 딸로 단란해 보인다.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을 법한데 어딘가 격이 맞지 않는다. 부자유스런 웃음은 듯한 연기로 각자의 역할극을 하는 듯한 가정, 역시 연구대상인 집안이다. 이 부잣집에 반지하방 식구들이 하나 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들어간다. 가정교사, 운전수, 가정부로 부유한 집안 자녀와 살림을 맡아주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업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천재적인 사기 수법을 총동원하여 부잣집으로 잠입해 들어가 월급 명목으로 가산을 빼돌린다. 기생충이 숙주에 빨판을 밀착시키고 영양분을 빨아먹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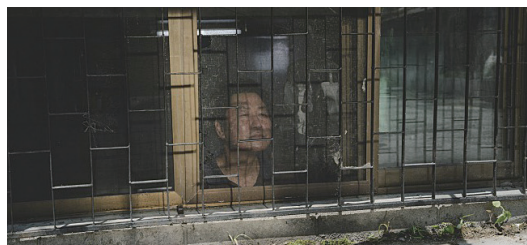
장르2: 봉준호 장르

봉감독은 말한다. 수상 자체도 기쁘지만, ‘봉준호 감독 장르’를 언급해 준 것이 감격스럽다 했다. ‘봉장르’는 무엇일까. 아마도 봉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알 듯하다. 대표적으로 〈설국열차〉, 〈괴물〉이 〈기생

충>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라. 이 영화들에는 봉감독의 예리한 시선이 파고든다. 피사체를 현미경으로 날 날이 들여다 보듯, '봉장르'는 인간 현실을 놓치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동화 속 같은 세계를 기차로 달려 가는 상황 속에 우등 계층, 열등 계층으로 나누어 갈등을 벌인다.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진다. <괴물> 또한 환경 오염이라는 경악스런 설정 앞에 목숨 건 사투가 벌어진다. '봉준호 장르'는 과연 무엇일까. 비극적 인간 현실 앞에 어떻게 갈등과 파국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 아닐까.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휴먼드라마를 영화로 재연하고자 하는 예술혼. 그게 봉감독의 세계관이라.

기생충이 날린 경고: 양극화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삶의 한 영역이다. 빈한한 가정이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산다는 설정. 현대 사회는 이를 빈부의 양극화로 개념짓는다. 소득 문제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 양극화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산층이 점점 얇아지고 부



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이 벌어진다고 경고한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지표로, 한 나라의 부(富)의 편중이 심화되는 경향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부의 편중이 가속화 된다면, 미래 어느 시대에 가서는 시민 대부분이 기생충처럼 거대자본에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단지 어느 정당의 구호에 그쳐서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생충으로 확인하는 그것: 인간의 향기와 존엄

영화 <기생충>을 통해 기생충은 결코 징그러운 물체가 아니라고 느낀다. 기생충은 가속화되는 황금우상주의 사회 속에서 언젠가 변질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다. 카프카의 <변신>이 대비된다, 인간은 결코 돈에 의해, 가난에 의해, 혹 그 반대로 풍요에 의해 인간이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반지하방에 살아도 인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궐같은 집에 살아도 인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인간이 환경에 의해 어떤 징그러운 물체로 변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징그럽지 않은 메타포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생충도, 숙주도 없다. 반지하방이든, 저택이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는가!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음하는 나무, 박수근과 반 고흐의 소묘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네덜란드가 낳은 불세출의 거장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와 한국의 서민화가 박수근(1914-1965)이 만난다면 어떻게? 이것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반 고흐는 30세때 <뿌리>를 그렸고 박수근은 39세에 <고목>을 그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나 이웃과 자연을 사랑한 기독교 화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박수근은 몇 그림에서 반 고흐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고목>에서도 처연한 나무의 모습에서 유사성이 엿보인다. 반 고흐의 <뿌리>나 박수근의 <고목>은 몸부림치는 나무의 모습이 마치 인간의 삶을 의인화시킨 것 같아 눈을 쉽게 땔 수 없다.

사실 두 작품은 두 작가의 굴곡진 삶을 암시하고 있다. 반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린 시기는 보리니쥬(Borinage)에서 광부들을 섬기다 해임당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무렵이었다. 그는 런던과 파리의 구필(Goupil)화랑에서 그림을 관리하고 판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외사촌 이자 화가 안톤 모베(Anton Mauve)가 있는 헤이그에 와서 그림 수업을 받던 시절이었다. 이 시절 반 고흐는 소묘와 수채화를 즐겨 그렸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대지에 달라붙어 있지만 폭풍으로 반쯤 뽑혀 나온 이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웅이 투성이의 뿌리들 속에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담아내고 싶었다. ... 적어도 내 눈에는 이 그림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구나”(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박수근, <고목>, 1952

고흐가 이 소묘에서 은유적으로 ‘삶의 고뇌’를 토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6.25 전쟁중에 제작된 박수근의 <고목>은 군산에서 피난중 부두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상경, 뒤늦게 가족과 해후하여 함께 살던 시기에 제작한 것이다. 박수근은 장남 성소를 뇌염으로, 3남 성인을 전쟁의 혼란 통에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쓰라리게 경험하고 있었다. 나무의 이미지는 박수근의 그림에서 단골 소재로 그의 처녀작 <봄이 오다>(1932)부터 1950년대와 60년대의 <나무와 여인> 연작까지 그의 작품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느릅나무가 유난히 많은 그의 고향 양구의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나무는 산전수전 다 겪은 곡절 많은 나목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가 살던 시대의 풍상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이 그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삶의 애환, 즉 그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절망의



반 고흐, 〈뿌리〉, 1882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잊거나 감추고 싶어한다. 고통을 피하려고 잠깐뿐인 쾌락과 환각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다고 해서 고통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시간만 지연시켜버릴 뿐이다.

반 고흐와 박수근은 과감하게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을 통해 보건대 두 사람은 고통이 우리 삶에 합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신음하는 나무를 아무런 배경도 없이 전면배치시킨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무언가 상황의 절망적인 사실에도 유익이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내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어 우리 영혼의 창조주만이 우리를 들어 올려 구세주의 상처가 우리의 구속임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구속자에게로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안에서 매우 뛰어난 역할을 수행한다.

반 고흐와 박수근의 소묘 작품은 고통과 아픔이 신

의 부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간주하는 대신 우리가 깨어졌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구세주에게로 다가서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회의주의자였다면 그들은 진작에 신앙을 저버렸을 것이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빛과 의무를 진 세상에 보답하기 위해”(반 고흐) 그림을 계속했으며, “선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조명”(박수근)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충실히 감당해냈다.

두 사람의 경우 생전에 유난히 시련의 나날을 보냈다. 그 연단이 깊고도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필시 거룩한 목적과 위대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예술계를 돌아보면 이런 사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명성과 돈과 같은 세속적인 목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세속적인 목적이 전부라면 그런 사람에 의해 탄생한 예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두 화가는 작품을 통해 삶의 진실성을 나누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들은 타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고통은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필요하기보다는 깊은 이해와 보살핌이 우선되는 지점이며, 미술가는 자신의 예술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이란 것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위로와 공감의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마 12:20)는 말씀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FAITH & LIFE



글쓰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유승민 (샘물중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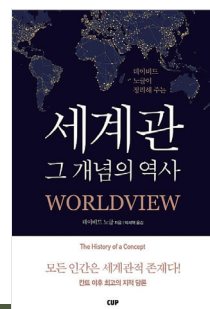
교사의 관점에서 이 책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교육적 입장, 즉 우리는 왜 알고자 하는가? 지식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다.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분리된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 책에 따르면, 칸트에 의해 처음 사용된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는 개념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갈망을 예리하게 표현하면서 인간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헤겔은 이성인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객관적 총체와 주관적 총체를 결합해 무한한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관점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나뉠 수 없는 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특유의 방식을 지닌다고 보았다. 헤겔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관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국가에서 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함께 습득하는 공유된 관점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세계관 개념은 근대화의 바람에 힘입어 철학, 신학, 문학, 예술계로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데카르트의 사상과 근대 과학의 협력 속에서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인식의 주체로 보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 세계를 해석하고 학문적으로 조작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객관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세계관은 이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주의는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학교와 교과 지식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학교는 가치 지향적이며 정치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특정 시대를 지배하던 세력은 교육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맞는 인간상을 배출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신본주의 관점에서 유지되어왔던 지식에 대한 도덕적 입장은 근대 이후로 과학적 기술로 무장한 지성의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팔머는 우리 모두가 지식의 오만에 압도당했으며, 그 오만이 공동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오늘날 지식의 행태는 호기심과 지배욕이다. 전자는 지식 자체가 목적인 지식이며, 후자는 응용과학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을 뜻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식에 대한 나의 입장은 상당 기간 전자에 해당되었다. 지식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호기심을 채우고 지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예술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근본적 실재와 예술의 연관성이나 세계를 이루는 서사 기호 체계에 대한 수업 연구보다는 예술적 표현이나 미학적 만족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불균형은 세계관의 결여에서 기인하였다. 기독교사에게 제일 중요한건 교과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 세

데이비드 노글(지은이), 박세혁(옮긴이)

CUP | 2018



세계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대강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셨던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먼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의 이숙경 교수님은 기독교교육이 공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문제라도 결국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해답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박영주 교수님은 다양한 철학의 논점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자연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세속 철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셨고, 이를 통해 기독교사로서 인식론과 가치관의 근원이 되는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성균관대의 유재봉 교수님은 교육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 교육 상황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현은자교수님은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비판적 연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 책은 위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거듭하던 차에 만났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1세대처럼 뜻을 갈

이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세계관에 대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연결시켰다. 우리는 공립학교와 대안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라는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격려하고 공감대를 나누었다. 특히 외롭게 근무하는 공립학교의 기독교사에게는 세계관의 투쟁이 더욱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서울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함께 참여하여 신국원 교수님과 최태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관의 주요 흐름과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배웠다. 이와 함께 세계관 운동의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였다. 이 변화는 세계관 운동의 차레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암묵적인 흐름이었다.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적 세계관에 기여한 연구 문헌들과 세계관의 개념을 정리한 이 책을 손에 들고 위대한 선배들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것이다. 이로 인해 믿음의 계주도 계속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승민



샘물중고등학교 교사이다. 경희대 미술학석사, 아세아연합신대(ACTS) 교육학석사에서 공부했고,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현장 교육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원 원천침례교회집사이다.

세계관 이야기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온전한 복음을 담은 세계관 이야기란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서 초점이 되는 복음 이야기는 두 개인가? 아니면 네 개인가? 저자 헬철크(Hugh Whelchel)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초점을 ‘타락’ 이야기와 ‘구속’ 이야기, 두 가지로만 이원화하는 습관이 있다고 우려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경의 복음 이야기는 이 두 개 이야기에 위에 ‘창조’ 이야기와 ‘회복’ 이야기 두 개가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네 개의 복음 이야기들이 함께 균형 있게 강조될 때, 잘 맞추어진 ‘다 초점 렌즈’의 안경과 같다. 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보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틀이 될 수 있다.(9). 왜 그럴까?

첫째,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 1:27). 로봇이나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웅대한 이야기에 속한 파트너”로 창조하셨고,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경작하라는 문화 명령이다.(16). 이 소명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결코 취소되거나 면제된 적이 없다. 또한 우리는 <반지의 제왕>에서 돌킨이 ‘하위 창조자’라고 부른 존재들과 같아서, 하나님이 무(無)로부터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20).

둘째, 타락 이야기는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야기된 우리 인간의 죄 안에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이다(23). 타락 상태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게 하고, 대신 우상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게 한다.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망과 상처, 고통과 슬픔, 분노와 질투를 경험한다. 우리는 이러한 타락 상태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망하도록 되어 있는 자신의 결과도 뒤바꿀 수 없다. 타락 이야기는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셋째, 구속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내용이다(롬 5:8). 즉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본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기만 한다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엡 1:5-6).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된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다(31).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영광과 소망을 미리 맛보게도 하신다.

휴 웰셀(지은이), 홍병룡 (옮긴이)
아바서원 | 2019



넷째, 회복 이야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는”(계 21:5) 일이 완성되는 때의 소망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계 21:4)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예비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내버리지 않고 다만 새롭게(카이노스)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어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소망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고전 15:58)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초점이 되는 네 장의 복음이야기 모두가 균형 있게 강조되고 붙잡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8).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야기 중 특히 ‘창조’ 이야기와 ‘회복’ 이야기를 간과한다. 복음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치명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44-47). 1) 우

리의 참된 운명을 말해 주지 않는다. 2)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3)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4) 구원의 개인주의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5) 죄를 관리하는 복음으로만 제한시킨다. 6) 성/속의 이분법을 만든다. 7) 구속을 도피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나는 현장 사역자로서 이러한 저자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저자처럼 만일 창조 이야기와 회복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함께 없다면, 누구든지 타락 이야기와 구속 이야기만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살아 낼 수 없다고 본다. 나 역시 오늘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된 이원론 극복이라는 과제는 창조 이야기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회복 이야기를 통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정 속에서 답이 찾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학회 사무국장, 침신대 겸임교수이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회 목사(2012~2016) 등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대학생 사역을 해왔다.

100권의 그림책

지상선 (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 동시 작가)

현은자 외 5인(지은이)

CUP | 2019



“단순히 책에 대한 책이 아니다. 그림책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탁월한 창문이고 안경이다.” (충신대 신국원 교수의 추천사 중).

특별히 이 책은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그림책 분과 연구진들의 연구 결실이다. 어린이 교육 전문가 12인(6인의 집필진)이 여러 해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엄선된 ‘그림책들’은 하나같이 언어와 그림 언어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교감을 이루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도 한다. 나아가 사랑, 우정, 희망, 연대감, 용기, 환대, 희락, 화평, 절제, 자비, 양선 등 세계에 대한 확장과 열린 공간이 된다. 열린 공간과 확장을 통해 독자들은 보다 넓은 시공간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며, 성령의 씨앗을 싹트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훌륭한 일러스트와 디자인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내외 작품이 모두 함께 하였으며 저자 및 배경과 내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서평도 수록되어 있다. 특별히 따뜻하고 친절한 서평은 독자가 놓치기 쉬운 텍스트 읽기를 폭넓게 짚어 주는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길라잡이의 역할은 소개된 독후 활동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독후 활동이 아니라, 그림책의 특성이나 주제를 반영하여 그림책에 대한 경험을 풍성하게 이끌었다. 이러한 후속 독후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 교육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100권의 그림책>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선별되었으며, 부록에는 책의 요약과 주제별 분류 색인도 실었다.

집필자를 대신하여 현은자 교수(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는 이 책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에게 읽어 줄 가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성인과 어린이 독자들이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며 그림책에 대한 독자들의 식견과 유익한 경험을 돕는 것이다.

“성인과 어린이 독자에게 읽어줄 가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다면, 그림책에 대한 안목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돕고 싶다면, 그림책 읽기를 통해 심리, 철학, 세계관적 접근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 그림책, 어떤 책을 선택하며, 어떻게 읽어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재미와 즐거움, 안목을 높여주는 품격 있는 그림책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글쓴이 지상선



한국독서코칭연구소 소장이자 동시 작가이다. 기독교세계관으로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종교감리교회 성도이다.

2019 춘계학술대회 주목할 논문 소개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

/ 조지혜

우리 우주 및 다중 우주의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한 연구동향

/ 홍성욱

유투브의 기독교세계관적 이해와 활용

/ 강진구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

/ 오의석

2019 춘계학술대회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2019. 5. 11(토) 10:00 ~ 18:00

한남대학교 창의홀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주제강연 (1부)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이덕주(감신대 교수, 한국교회사)
 “3.1 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과제” 백종국(감신대 교수, 정치학, 기운실 대표)
 “3.1 운동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 박상진(감신대 교수, 기독교교육학)

패널토의 (2부)
 사회: 이훈선 (국민대 교수, 법학)
 패널: 이덕주, 백종국, 박상진(주제강연자 전원)

분과 발표논문 신청안내

논문신청마감 : 4. 5(금)까지 ▶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
 요약본 마감 : 4. 12(금)까지, A4지(약 2쪽) ▶ 메일제출 : ghakyun@daum.net
 논문제출마감 : 4. 26(금)까지, A4지(약 10쪽) ▶ 메일제출 : ghakyun@daum.net

*대상분야: 기독교세계관, 철학, 문학, 경제, 교육, 과학, 법률, 예술, 복지, 상담, 의학, 통상역 등
 *대학원생 논문은 심사 후 우수논문상(상금 50만원, 세로남교회 후원)을 시상하며, 학회주제와 관련된 논문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마감기간을 지켜지 않는 경우 발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72-4967, 010-3222-6567(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주최 | 기독교학문연구회 후원 | 한남대학교 & 세로남교회
 주관 | 산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주제 :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일시 : 200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한남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홀 및 강의실

* 관련 동영상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이른 시간에도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모여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개최식과 함께 우수 대학원생 논문상을 시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조지혜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이덕주 교수님(前 감신대), 백종국 교수님(경상대), 박상진 교수님(장신대)께서 주제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이호선 교수님(국민대)의 사회로 패널토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43개의 논문이 분과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의 순간들 / 경청의 진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조지혜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눈 세 명의 기혼여성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의 관점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세 여성들과의 대화를 연구의 맥락에서 다시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면의 치유와 대화,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미 연관을 탐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둘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참여자들과의 대화 체험을 2년 후에 연구화하게 된 본 연구의 특성상, 나는 과거의 대화 체험을 세 참여자들과 함께 복원하면서 위의 연구 문제를 풀어갔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맥락에서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숙고하였다. 무엇보다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며 이해해가는 내면적인 대화 체험을 특징으로 하였다. 나는 이러한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그 과정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내면의 치유를 가져오는 대화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교육적 만남의 존재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과 과정

을 수행하였다. 2013년부터 신앙의 교제 안에서 나눈 세 여성들과의 대화를 2015년 이후부터 연구화하면서, 나는 먼저 그들과 나눈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과 과거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작성하면서, 대화 체험을 일차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구술 중심의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질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세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체험에 대한 질적인 기술을 토대로, 나는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과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

치유적 대화의 과정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돌봄이라는 인격적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타인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관심과 자각으로 이어졌다. 기다림과 머뭇거림의 시간을 존중하며, 깊은 대화를 통해 타인은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열어 보일 수 있었다. 이때 듣는 이는 상처를 고백하는 이를 향해 존재를 기울여 응답함으로써, 상처 입은 타인을 향한 응답의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상처의 고백에 대한 응답은 사랑에 의존한 공감적 경청으로 표현되었는데, 이와 같은 고백과 응답의 대화를 통해 타인은 자신의 깨어진 내면을 표현하고 수용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상

치를 고백하는 이는 상처 입은 존재와 삶에 대한 고백적 구술을 통해, 존재 깊숙이 자리한 상처와 고난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깨어지고 상실된 실존 범주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채워감으로써,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삶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의 힘을 기르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교육에서도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화 체험이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치유적 대화의 속성은 위와 같이 참여자들과 나눈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현실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이라는 다섯 가지 속성은 상호 연관 속에서 치유적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었다. 나는 치유적 대화의 각 속성을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성찰하고 해석하면서, 치유적 대화와 교육의 존재론적 연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 형성의 한 과정으로 의미를 가진다. 내적인 변화는 존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심층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확보된다. 존재의 발생적 연원을 찾아가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과거의 체험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대화는 언어적 차원을 넘어, 감성적 공감과 정서적 돌봄 그리고 윤리적 관계 맺음을 통해, 타인의 존재와 함께 교감하는 깊은 대화의 차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화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화는 타인의 존재에 닿는 보다 질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만남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체험함으로써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 가는 대화의 한 측면을 발견하였다. 이는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과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내적인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화를 통해 주체와 타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서로의 존재를 열어 보인다. 그리고 주체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깨어진 실존 범주를 발견하며, 자신과 타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고유한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대화를 기반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재정립하며 타인을 향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은 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 형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나는 치유적 대화 체험을 교육의 관심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타자’의 의미를 교육적 인간 형성의 지향 속에서 성찰하였다. 교육은 두 인격 사이에서 서로의 존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화의 본질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실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의 존재에 깊이 참여하는 대화는, 사랑의 가치를 토대로 ‘인격적 주체-타자’를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존재론적 지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본 논문은 지난 5월 11일(토),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대학원생부 발표 논문 9개 중, 새로운 청년학술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술상은 년 2회(춘계, 추계) 새로남교회 후원으로 수상자에게 50만원 장학금이 상패와 함께 시상되고 있다. 논문의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우리 우주 및 다중 우주의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향

홍성욱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KAIST Ph.D)

지구 바깥의 다른 행성에도 우리와 같이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환경은 어떤 것일까?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환경을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방식을 ‘생명체 거주가능성’(habitability)라고 한다.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의 생명체 거주가능성, 그리고 우리 우주 전체의 생명체 거주가능성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물리 법칙이 전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런 우주의 생명체 거주가능성은 우리 우주에 비해 얼마나 다를까?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해 천문학 및 우주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특히, 본 발표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우리 우주 전체의 생명체 거주가능성” 연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생명체 거주가능성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토의 및 질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연 인간이 우주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환경이 지적/영적 피조물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어렵잡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인간이 태양계, 우리 은하, 우리 우주, 더 나아가 (가상의) 다중 우주 안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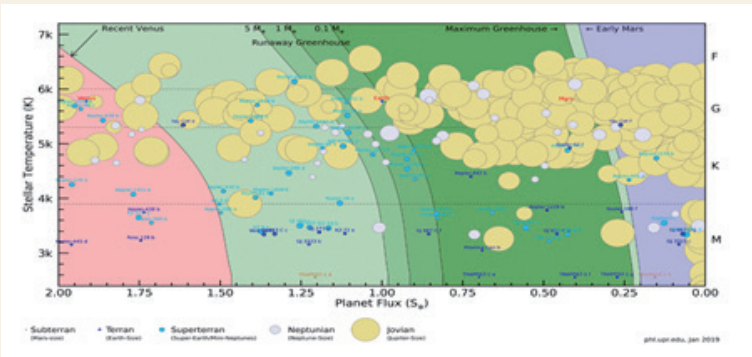
영적 피조물에게 적합한 환경에 위치해 있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 돌리는 것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동일한 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신학적/철학적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무한히 많은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면? 만약 인간이 태양계, 우리 은하, 우리 우주, 다중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영적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위에서 구한 결론은 단순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우연히 적합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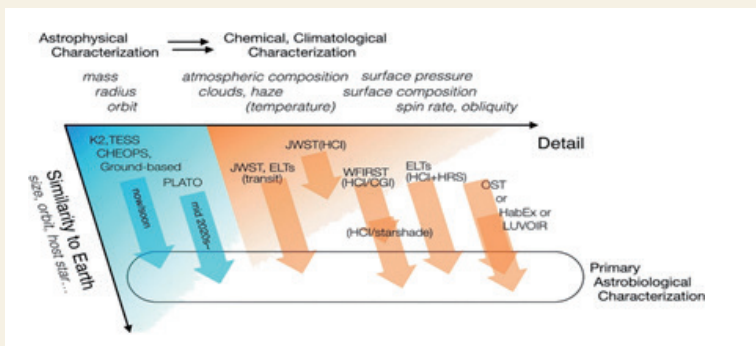
2019년 현재 생명체 거주가능성에 관한 연구 현황을 보면, 인간은 우리 은하에서도, 우리 우주에서도, 더 나아가 다중 우주 안에서도 영적/지적 피조물에게 최적의 환경에 위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수많은 다중 우주 중에 인간은 통계적으로 이상치(outlier)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만약 다중 우주가 없고 우리 우주만 존재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의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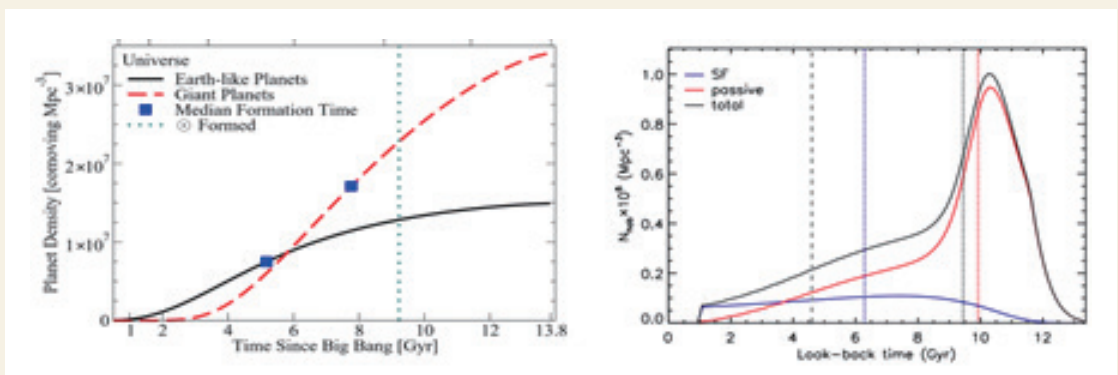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과학기술분과에서 발표되었으며, 논문의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림 1] 2019년 2월 1일 현재 발견된 골디락스 영역 근처의 외계행성의 분포. 가로축은 행성에 도달하는 항성의 빛의 양. 세로축은 항성의 온도. 동그라미의 크기는 행성의 크기. 연두색에서 초록색 영역이 골디락스 영역에 해당함. (<http://phl.upr.edu/projects/habitable-exoplanets-catalog/>)



[그림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생물학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외계생명체 탐사 방향. 가로축은 외계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줌. 세로축은 얼마나 지구와 흡사한 외계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 (Fujii et al., 2018)



[그림 3] (왼쪽) 우리 우주 내의 지각형 행성과 가스형 행성의 밀도와 시간과의 상관관계. (Behroozi & Peebles, 2015) (오른쪽) 우리 우주 내의 다양한 은하의 생명체 거주가능성과 시간과의 상관관계. (Gobat & Hong, 2016)

유튜브의 기독교세계관적 이해와 활용

강진구 (고신대 교수, 국제문화선교학과)

2005년 유튜브가 세상에 존재감을 알린 이후로 2018년 현재 전 세계인 4명 가운데 한 명, 즉 18억 명 이상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 불과 1분 안에 400시간이 넘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새롭게 업로드 되고 있다. 1일 시청량은 10억 시간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운영자)의 롤모델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대도서관은 게임해설로 시작한 그의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 수 170만 명이 넘는데다 누적 시청시간만 1억5천만 시간을 넘기며 유튜브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게 현대인의 눈을 사로잡는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7살 어린 아이 라이언이 유튜브를 통해 장난감 리뷰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라이언 토이스 리뷰’는 지난 해에 무려 2200만 달러(약 244억 8600만원)를 벌어들여 유튜브 수익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낸 크리에이터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유튜브가 디지털시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세상에 알렸다.

교육부가 2018년 전국의 초중고생 2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희망직업순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에 이어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마도 재미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를 포함한다. 먼저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연령이나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반은총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총처럼 유튜브는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어떤 SNS 보다도 뛰어난 소통의 도구로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원활한 전달력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보편성과 개별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정적 평가도 아울러 존재한다. 첫째 기술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콘텐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을 수 밖에 없다. 유튜브의 처음 시작은 스마트폰 촬영과 무료앱을 통한 편집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제작과 편집전문가를 기용할 만큼 신기술확보가 중요해졌고, 수용의 측면에서 역시 5G시대가 열리면서 빠른 속도로 영상을 볼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 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이다. 둘째, 선정성과 상업성의 성향이 강한 점은 유튜브가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의 부정적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튜브는 조회수와 구독자수에 따라 광고가 붙고 이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으로 흥미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셋째, 지나친 주관적 방송은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크리에이터의 주관성은 유튜브의 강력한 특징인 동시에 객관성 및 사회적 공익성을 훼손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가 가져 온 의식의 변화는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교회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식은 예배와 설교에 집중되어 있다. 예배실황을 중계하거나 설교녹화 동영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 가장 흔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설교를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갖추고 기본적인 자막기 활용이 가능한 까닭에 별다른 편집 없이도 설교동영상은 예배가 끝난 후 손쉽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설교라는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맞게 사전 기획을 해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편집과 사전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가 있다는 사실은 염려가 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첫 번째 그룹은 '다마스쿠스 TV'로 기독교변증이 주요 사역 내용이다. '다마스쿠스 TV'의 주요한 특징은 첫 방송에서부터 나타났다. 2017년 11월 27일 <만들어진 신>의 저자이자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리처드 도킨스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옥스퍼드대 수학교수 존 레녹스와의 토론을 한글자막을 넣어 라이브로 생중계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의문점들에 대한 논리적 답변들을 다룬 영상들이 이어졌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크리스천이 왜 기독교 변증을 배워야만 하는가>와 존 파이퍼 목사와 팀 켈러 목사의 <C.S. 루이

스를 말하다>와 같은 대담 영상들도 한글자막을 입혀 비록 4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기독교 유튜브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그룹인 전문인 팀사역 단체 케어코너즈(Care Corners)는 30대의 이보람 감독을 내세워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웹드라마를 선보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분 내외 분량으로 각각 8편 씩 총 16편의 드라마 <라이프>(LIFE) 시즌 1, 2를 제작한데 이어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는 8편 구성으로 <라이프> 시즌 3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드라마를 표방하듯 그리스도인이란 신앙과 부딪히는 현실에서의 갈등을 진솔하게 담아 즐거운(?) 성찰에 이르게 한다. 영상이 제공하는 가벼운 터치 속에서도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크리스천 웹드라마는 지금까지 영화나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다만 대담 형식의 기독교변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디어와 용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공략하는 일은 새로운 문화선교전략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새로운 플랫폼 유튜브를 거룩한 즐거움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기독교변증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세계관 A> 분과(좌장: 신국원 교수)에서 발표되었으며, 논문의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

오의석 (대구가톨릭대 교수, 미학)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특정한 종교미술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 실천과 참여의 조형예술로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변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의식을 체현한 실천적 작품 사례들을 찾아서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실천적 작품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성향,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론의 성격,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의식과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발간된 문화신학 이론서와 국내의 기독교미술저서와 작가론, 비평들을 수집하고 연구의 자료로 살펴보면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작가들의 신학적 입장이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과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영향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로서 사회의 변혁보다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고 따라서 작업의 주된 경향이 말씀의 시각적 증언과 선포, 경건과 영성적 삶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에 대

한 관심과 표명 등은 기독교 미술의 주된 범주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일상과 현실, 역사와 환경, 정치와 국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혁적 노력을 보여주는 경향의 작품들을 기독교 미술의 영역 밖의 미술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체현을 다룬 작품들이 기독교 미술의 범주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존 스토틀는 그의 명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전쟁과 평화, 환경, 인권, 실업, 빈곤, 경제적 불균형, 인종과 다문화사회,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 페미니즘, 동성애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한 차정식 교수는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에서 정치, 세대갈등, 양극화, 연고주의, 가정의 해체, 자살, 생태, 다문화 사회 등 구체적인 문제로 23가지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실천의 주제로 통일과 평화,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노인문제, 위안부, 동물 실험과 세월호 등 다양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차기의 연구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과 분단 상황의 극복에 대한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

는 작가로 허진권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고, 통일 캠프에 꾸준히 참여해온 심정아의 작품, 그리고 최근 '부드러운 장벽'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조각가 이웅배의 설치작품에 연구자의 철조망 작업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환경과 생태의 회복에 관심하는 작가로 김용림의 1990년대 초기 환경 관련 작품과 박훈 작가의 생태 환경 프로젝트와 현대 기술문명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신영성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보았다.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 -

본 연구에서 발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연구자의 작품세계를 비롯하여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오직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보다도 현실의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의 인식과 조형적 체현의 작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에 대해 반응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하나의 책임의식이며 소명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진보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등을 통해서 이미 실천과 참여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신학적 함의가 현대 기독교 미술의 양식 속에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미술을 종교적 주제와 교회 안의 미술로 한정하고 제한해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작품을 기독교미술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어린이양, 대구경북성시화전, 2017



W-Story 작은 모뉴먼트,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 인식과 실천에 궤적을 같이하면서도 조형 작품의 특성상 그 증언적 기록의 의미를 갖는다. 비록 소수의 작가들이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조형 예술가들의 현실 의식과 조형작업을 통한 반응을 작품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루고 정리함으로써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고, 그 지평을 확장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찾고 미술계를 향하여 문화변혁적 소명을 일깨우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미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행동하는 예술'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세계관 A> 분과(좌장: 신국원 교수)에서 발표되었으며, 논문의 전체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 삼일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삼일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는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에서 2013년 3월부터 7년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있다. 처음에는 입문과정으로만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심화과정, 부모세계관학교, 어린이세계관학교, 세계관독서모임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입문과정

10주 과정으로 ‘세계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환경’, ‘윤리’, ‘일상’ 등을 주제로 120분 강의와 30분 조별토론으로 진행된다. 신국원 교수(충신대 명예교수, 기독교철학)의 <니고데모의 안경>과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장)의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가 필독서이고, 주제와 관련된 <세바시 15분> 등의 영상을 자료로 보게 하며, 수료 시에는 조별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해 발표하도록 한다.



심화과정

입문과정의 주제 중 한 가지를 정해서 6~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나눔과 섬김’, ‘공동체’, ‘일과 소명’, ‘기독교세계관’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세계관학교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유경상 대표)와 협력사역으로 3년 6학기 운영된다. 6학기 주제는 ‘생각’, ‘성품’, ‘미디어’, ‘꿈’, ‘고전’, ‘리더십’ 등이다. 강사가 어린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토요일에 직접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계관 독서모임

매달 한권의 책을 정해 월 1회 모여 발표하고 공부하는 과정이다.

삼일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하나님나라의 복음, 복음의 공공성, 일상, 공동체이다. 7년 동안 1,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참가자들을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삼일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는 앞으로 강의방식 다변화, 공공성 강조, 삶으로의 체화 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2.0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성경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를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행사에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이 마치 특권을 나눠주듯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어느 모임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저를 세계관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나의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에 머물렀던 개념에서 선교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통합된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창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삶의 전 영역에서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에서 저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 은혜 총만한 사람만 소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자로, 자신이 위치한 바로 그곳에서, 지금 당장 행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하여 맡기신 세상, 즉 자연, 자원, 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키고 발전시킬 소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듯이 소명 받은 자로 살아야 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아끼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말로 응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고, 노인을 보살피고,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나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알려줄 것이라 다짐해 봅니다.

또한 속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여 기도하지만 모두 자기 자녀, 가족, 성공,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 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못 간 자녀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관심거리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계관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반드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기를 결심한 지체들에게 서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싶은 소망이 커진 시간이었습니다.

 글쓴이 박자영

현재 삼일교회 집사이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으로 섬겼다.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결과 보고

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장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주제 :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후원 : 한남대학교, 새로남교회
참석 :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총 140명(등록자 134명)
발표 : 주제강연(3편), 대학원생부(3개 분과 9편), 교수일반부(10개분과 43편)
새로남 청년우수논문상 수상 : 조지혜(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신앙과 학문〉 발간

연구재단(KCI)의 등재지로서 국내 유일의 신앙과 일반학문의 융합 학술지
발행일 : 년 4회 발간(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투고자격 : 동역회 정회원 (대학원생은 게재료 50% 감면) 자세한 안내 : www.worldview.or.kr 문의 : 02-754-8004

2019년 추계학술대회(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일시 : 2019년 10월 26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 호암관(잠정)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
(특별강연: 프레데릭 로봉(Frédéric Rognon),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 종교철학 교수)

대학원생 기독교세계관 연구회(정기모임)

서울대, 카이스트, 한동대, 서울지역 사범대 대학원생 모임 등을 세워가고 있고, 신촌지역, 성균관대, 경북대 대학원생들을 위한 모임이 준비 중에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김성수(前 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나야 대표)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주)렘퍼스 이사)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손병덕(총신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 교사) 유경상(CTC 대표)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윤현준(서울대연구원)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 연구부학회장 문석윤(경희대 교수) / 학술부학회장 이호선(국민대 교수)
총무 이상무(평택대 교수) /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임춘택(경남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병덕(총신대 교수) /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손창민(University of Virginia Tech 교수) 우종학(서울대 교수) 윤매옥(한일장신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VIEW(전성민 대표)

사명 :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은 기독교세계관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낸다.

VIEW 한국사무실 : viewinkorea@gmail.com / 문의 : 010-5154-4088

2019년 2학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학교설명회

서울지역 / 2019.7.19(금) 오후 7시 / 장소: 양화진책방(서울 마포구 성지길 42)

호남지역 / 2019.7.21(주) 오후 4시 / 장소: 사랑나눔교회(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8길 48)

영남지역 / 2019. 7. 26(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CTC(유경상 대표)

사명 :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가정, 교회,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명 가운데 기독교세계관교육 교재개발과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cafe.naver.com/ctc21 / 문의 : 010-2792-5691)

가정 사역 : 파주 지역 홈스쿨러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인문고전학교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가 3학기차 프로그램으로 “기독교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예술관과 문화관을 공부한다.

교회 사역 : 총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 세미나’와 ‘어린이세계관학교 지도자 과정 세미나’ 진행. 또한 삼일교회, 요한서울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가 토요일마다,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부모세계관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사역 : 2018년에 이어 한동글로벌학교와 MOU를 맺고 ‘부모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학교’, ‘교사들과 함께 하는 교재개발 연구 모임’, ‘고3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수업’이 열리고 있다. 또한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세계관 여행’ 세미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사명 :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www.cupbooks.com) / 문의 : 02-745-7231

〈2019년 상반기 주요 사역〉

신간 제작

-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현은자, 김정준, 연혜민, 김민정, 김현정, 장시경 지음) - 본서는 한국기독교 유아교육학회 그림책 분과 연구진들의 연구 결실이다.
- 4월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샘플북 제작, 베스트셀러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의 후속작으로 마음에 대한 하나님 창조의 본질을 탐구한다.
- 6월 〈게리 토마스의 행복한 결혼학교〉(게리 토마스 | 윤종석 옮김)

〈부모학교〉, 〈부부학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등 널리 알려진 저자 게리 토마스의 저작

재판 제작

〈부모학교〉,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자녀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어린이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 등의 재판 제작을 진행하였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9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780,000
	임원회비	540,000		기타급여	400,000
	일반회비	4,525,000		소계	6,180,000
	기관후원금	2,5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사무실후원금	0		통신비	57,310
	CTC후원금	70,000		복리후생비	682,260
	VIEW후원금	830,000		소모품비	0
	기타후원금	2,000,000		비품	0
	월보구독료	456,500		회의비	121,610
	학술지원금			회계용역비	220,000
	세계관사역지원금			여비교통비	110,000
	기타	750,000		사무비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92,742
	소계	12,021,500		소계	3,540,122
기타수입	일반이자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법인이자	0		도서구입비	0
	법인세환급금	8,610		CTC후원금	69,450
	기타수입	0		VIEW후원금	942,300
	기금차입	400,000		학술지원금	0
	결산이자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예수금	302,410		10선컨텐츠	0
				소계	1,011,750
			출판(회지)	인쇄비	700,000
				발송비	543,900
				소계	1,243,900
	소계	711,020	기타	웹진원고료	0
				CUP기금적립	400,000
				세금	0
				잡비	0
				소계	4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550,000
	학회행사수입	1,950,000		학회장소사용료	0
	자료집판매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지판매	0		학회홍보및기타	2,532,400
	학술지심사비	560,000		학술지인쇄비	940,000
	학술지게재료	0		학술지발송비	8,360
	저작권료	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1,051,600		학회조교비	300,000
				학회기타	45,150
	소계	3,661,600		소계	4,375,910
당월 수입액		16,394,120	당월 지출액		16,751,682
전월 이월액		20,156,160	차월 이월액		19,798,589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3천 김성권 3천5백 김동현, 김선헌, 김선헌,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전은경, 정필화,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동,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제우,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심정하, 유충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구,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희동,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장현정 7천5백 강찬진, 김재우, 방선기,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웅재, 고현경, 곽정임, 권경호, 김원평,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홍, 김남진, 김도형, 김막미, 김민성, 김반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민, 김재정, 김정도, 김정일, 김정준, 김종일, 김종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진호, 김창현, 김철수, 김태진,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나리,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종원,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종화,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헌탁,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길, 신성만, 신은주, 신찬윤,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양희선, 연혜민, 오성호, 우현기,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은혜,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무, 유현동, 윤명식,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천석,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계실, 이권철, 이기섭, 이기훈,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명휘,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급,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국,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춘성, 이해리, 이행로,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이희진, 임도진,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신지, 정경미,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조경덕, 조미연, 조선하, 조승희, 조영우, 조용현,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지혜, 조창희, 조창희, 조현웅,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연무, 최영, 최은정, 최준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정석, 홍종민,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인경, 황혜숙 1만5천 김동현,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강민창, 강용만, 김세광,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오지희, 우시정, 유경상, 유경숙, 윤지혜, 이건, 이기서,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백상현, 서성록, 송인규, 송태현, 이근호, 이은실, 임희욱, 정민,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우병훈, 이은미 5만 김정호,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이상민, 이원삼, 정은애, 천성빈,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구, 김남준, 김용민, 서민정, 석종준, 장근배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손봉호, 손정엽, 신국원, 윤완철,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1만 손하나 12만 이풍인

계 6,634,5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마포중앙교회, 부천침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연약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바울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700,000원

전체 11,334,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새 기관지 발간에 즈음하여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라 칭함)는 현재 약 8천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기독교 비정부기구 중 하나로써, 2009년 5월 (사)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와 기독교학문연구소(KCSI) 두 단체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동역회의 사명은, 학문, 교육, 언론, 출판, 강연, 모임 등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고자 동역회는 기관지 <월드뷰>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역회는 2018년 5월 26일 총회에서 <월드뷰>와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내린 것입니다. <월드뷰> 분리 논의는 지난 2017년부터 다수의 동역회 회원들에 의하여, <월드뷰>가 동역회 기관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월드뷰>가 동역회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편집과정, 편집위원 선정, 논지 설정 등에 있어서 동역회의 거버넌스와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실행위원회는 2018년 2월 20일 총회에서 <월드뷰> 분리 안을 상정하였으나, 총회는 분리 안에 대해 <월드뷰> 운영의 개선을 조건부로 표결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후 동역회 실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월드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편집위원장 제도 제안, 편향된 정치적 입장을 보인 일부 편집위원의 교체, 기사 내용의 정치적 균형 등을 요구하였으나 <월드뷰> 발행체제는 동역회의 거버넌스와 분리된 채 유지되었고, 동역회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한 다수의 정회원들은 동역회를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동역회 회원들 간의 소통과 열린의 사결정 구조를 경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실행위원회, 이사회, 임원 다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5월 26일 총회에서 <월드뷰> 분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총회에서는 2019년 5월까지 <월드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분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역회의 기관지로 알려진 <월드뷰>의 분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월드뷰>가 회원 다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역회는 회원 다수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기관지를 불가피하게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역회 기관지를 발간하면서 우리는 다시 동역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동역회 모든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오성, 성령의 역사를 통한 모든 인간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굳건히 믿는 신앙의 기초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신앙적 기초가 획일화된 신앙이나, 정치적 입장의 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역회에서는 성경적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실로 다양한 해석적 입장이 공존 가능하다고 믿으며, 획일화된 영성과 해석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교조적 태도를 지양합니다. 이에 동역회 모든 회원은 다양한 담론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현대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금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 기관지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동역회의 이사회, 실행위원회, 학회의 대다수 임원들은 최근 겪은 격통과 쓰라림을 계기로 새롭게 일어나, 모든 회원과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동역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기 위해 발행과정, 편집권, 편집위원 선정, 재정에 있어 투명한 운영을 다짐합니다. 특히 동역회 새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뜻을 받들어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가치와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손봉호, 실행위원장 박동열,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 <신앙과 삶> 편집장 신국원 배상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석종준	사무국장
	윤지혜	간사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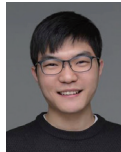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의 행복한 결혼학교

Cherish

당신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비결

관계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부부를 위한 풍부한 지혜와 진솔함으로
풀어낸 실제적 조언!



게리 토마스 지음

윤종석 옮김

신국변형판

312쪽

값 15,000원

CUP

www.cupbooks.com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기독교학문연구소(KCSI) & (사)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 통합기념 사진(2009년 5월 16일, 송실대 조만식기념관)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worldview.co.kr 후원회원으로 가입



QR코드로
바로 가입하기